

영적 치유

갈라디아서 2:20

김요셉 목사님

서론

(1) 이단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의 목적은 요한복음 20:31이다. 이단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다른 것을 더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다. 치유, 성공, 명예, 응답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직이다.

(2) 감사의 조건도 그리스도다.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구원으로만 감사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영원히, 평생, 날마다 감사할 내용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다. 조건적 감사는 종교인이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감사, 그리스도로만 감사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건강, 지위, 응답, 다 없어지는 것이다.

(3) 헌금은 왜 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헌금 낼 때 아까운 이유가 뭐가? 내가 벌어서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릴수록 부족하다. 진짜 효자는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불효자는 조금 해 놓고 엄청 잘 한 것처럼 말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헌금이 그렇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신앙고백을 하면서, 어떤 이유도 없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각인되어야 늘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부족하게 느낀다. 그게 아니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한다. 조금 해 놓고 응답 기다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영적 치유다.

1. 왜 계속 실패가 오는가?

불신자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불신자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왜 실패하는가? 중요하다.

(1)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흐름을 놓치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 교회의 흐름이 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흐름을 못 타면 망하는 것이다. 교회의 흐름을 어떻게 타는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야 말씀도 듣고 광고도 듣고 흐름을 타게 된다. 왜 실패하나?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 그렇다.

(2)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각인된 것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안 알아준다, 응답이 안 온다 해서 시험에 든다. 그게 종교다. 종교는 철저하게 나 중심이다. 여기에 혹시 나 복 받고 후대 복 받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응답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다. 온다. 그것은 배설물이다. 그게 목표, 목적, 결론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안 되면 전부 나 중심, 물질 성공, 후대 번성이 된다. 다른 종교가 그것 하고 있지 않다. 우리까지도 그것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성공하고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마태복음 6:33,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이다.

교권, 힘 자랑하는 것이다. 인본주의, 나 중심이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시기한다.

2. 오직 할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오직 할 것이 있다. 지금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1)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그리스도로 오직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해야 한다. 그리스도 밖에는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변하고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없다. 지난해 강단말씀이 전혀 없다. 힘들어서 죽겠다 하고 와서는 엄청 울고 기도하고 간다. 말씀이 없다. 오직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답으로 붙잡는 것이다.

(2)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치유, 성공, 응답이 아니다. 매번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진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무너진다.

(3) 오직 할 것, 오직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증인이 된다. 성령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증인이 된다. 병 치유는 과정이다. 목적은 증인 되는 것이다.

(4) 오직 기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조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다.

(5) 오직 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전도다. 하나님의 목적,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요6:39-40).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살린다고 했다. 우리가 할 것이다. 전도에 대한 오해를 버려라. 전도는 어렵고, 열심히 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지속해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2:1-47, 되어지는 것이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시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안 더하시면 전도인가? 전도다.

3. 속지 말 것

(1) 사단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 사단이 뭐라 해도 안 속는다. 사단이 별별 편다. 사단 속에 붙잡혀 있는 불신자 상태의 나를 찾지 마라.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2) 자신에게 속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6:6-8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다.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한계는 나와 상관없게 된다. 높든지 낮든지 거기에서 해방된다. 뭐든지 도전할 수 있다.

(3)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을 찾고 도전해야 한다. 환경, 현장에 속고 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재앙지대, 사각지대일 수 있다. 그럴 것이다(엡 2:1-3).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냥 두고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것이다. 왜 사단이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가?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다. 속지 마라. 자신에게 속지 마라. 자신 해 봐야 뭐가 있다. 나는 무엇인가? 아무리 해 봐도 아무 것도 없다. 나의 것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한다. 찾기 전에는 stop해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면 나의 현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충만을 가지고.

결론

영적 치유의 key다. 오전에 말씀을 받았다.

(1)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중한다. 문신 명도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니가 알아맞히지 않나. 종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

(2) 이 집중하는 방법이 3오늘이다. 방법이 다락방이다. 5기초다. 집중하는 방법이 캠프다. 예배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있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방향, 인생이 잘 가든 못 가든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되었든 이 안에 있어야 한다. 3오늘, 다락방, 말씀운동, 포럼, 지교회,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 자체가 성공이다. 다 잘 되어도 이것이 없으면 실패하는 인생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다. 인생이 이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삶이 너무 바빠서 저 안에 없다면 실패하는 인생이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는 인생일 뿐이기 때문이다.

(3) 응답이 올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증인이다. 어느새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 있다. 답을 얻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 있다. 전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리스도 말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 안에 있으면 오는 응답이 증인이다(행1:8). 증인으로 서라. 무슨 증인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속(결론-(2))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고, 이 속에서 미션을 찾으시기를 축원한다.